

와인은 좋은데 취하긴 싫어... 무알콜 와인 뜬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독일 라이츠 포도밭 전경.

/leitz-wein.de

테이블 위의 맥주를 모두 콜라로 바꿔달라고 하자 웨이터가 의아하게 쳐다봤다. 대학생 때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의 일이니 벌써 20년은 훌쩍 지난 얘기다. 술먹고 취하면 도대체 어떻게 춤을 추라는 거지. 당연한 걸 왜 되물냐며 빨리 바꿔달라 했다. 무알콜 맥주나 무알콜 와인이 있었다면 춤은 춤대로, 분위기는 분위기로 즐길 수 있었을텐데.

‘취하지않을거면술을왜마셔’라는 말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던 시대는 지나갔다. 분위기와 맛, 건강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무알콜 와인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측되는 2022년을 살고 있다.

닐슨에 따르면 미국에서 알콜 도수 0.5% 미만의 무알콜 와인의 판매규모는 작년 상반기에만 43%나 급증했다. 음료시장 조사 업체들은 전세계에서 무알콜 또는 저알콜 와인의 소비가 오는 2024년까지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콜이 없다면 포도 주스와 같은 것 아닌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효모와 양조 과정이다. 발효 등의 제대로된 과정이 없다면 와인이 아니라 포도 주스다. 진짜 무알콜 와인은 효모로 발효된 포도즙으로 양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알콜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레드와인 한잔은 보통 12~15%의 알콜과 약 125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양이라면 무알콜 레드와인은 알콜은 0.5% 이하, 칼로리는 약 30~35로 푹 떨어진다.

와인 업계는 건강에 더 좋은 와인, 소위 ‘BFY(better for you)’ 트렌드에 이미 올라탔다. 이전까지 무알콜 와인이 생일 축하 케익 옆이나 장식할 싸구려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좋은 포도와 정제된 알콜 제거 방법을 앞세워 유명 와인 메이커들이 뛰어들었다.

무알콜 와인의 선두주자는 독일이다.

독일 와이너리 라이츠(Leitz)의 아인스 츠바이 제로(EINS-ZWEI-ZERO)는 무알콜 와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브랜드다. 라이츠 자체도 라인가우 지역에서 훌륭한 생산자로 일컬어지는 곳이지만 무알콜 와인으로 최근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무알콜 와인을 로제 스파클링 와인부터 리슬링, 카버네 소비뇽까지 다양하게 생산한다.

라이츠의 아인스 츠바이 제로는 대부분이 알콜 도수가 0%며, 레드에는 0.5%로 오렌지 주스와 거의 비슷하다.

라이츠는 “무알콜 와인은 결코 기존 알콜 와인과 똑같은 맛이나 깊이, 구조감 등을 가질 순 없지만 매우 유사하고, 알콜없이 와인을 즐

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도 무알콜 혹은 저알콜 와인에 있어 각광받는 곳이다.

특히 뉴질랜드 와인의 경우 기존에도 서늘한 기후에서 천천히 익는 포도로 가렵고 신선함이 매력이었다. 당과 알콜을 낮추기 쉬운 여건이란 얘기다. 알콜로 줄어든 구조감과 무게를 풍부한 향으로 채울 수 있었다. 연구개발에만 1700만 뉴질랜드 달러를 쏟아붓는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뉴질랜드 10대 와인 생산자 중 하나인 기센 그룹은 지난해 처음으로 무알콜 소비용 블랑을 출시했고, 알콜 도수를 낮춘 피노그리와 리슬링도 선보였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뇌를 발달 시키는게 바로 귀찮은 일”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즐거운 일과 중 하나에 속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오르곤 했다. 하루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탄 중학생이 집에 가는 내내 핸드폰을 붙잡고 친구와 통화하는 걸 의도치 않게 듣게 됐는데 대화 내용이 압권이었다.

그는 “헐”, “대박”, “진짜”라는 3개의 단어만으로 한 시간 넘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처구니없을 땐 “허얼...”, 놀랐을 땐 “헐!”, 극도로 흥미로울 땐 “대~~~박”, 빨리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땐 “대박, 대박, 대박”,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땐 “진짜?”, 짜증이 날 땐 “아, 진짜”라고 말했다.

단어를 짧게 내뱉을 때와 말꼬리를 길게 늘어 소리를 낼 때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 단 세 마디 말로 장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어디에나 찰떡으로 어울리는 감탄사(내지는 추임새)가 어린 친구들의 표현력을 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라는 책에도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는 젊은이들의 말 습관 중 “~한 것 같아요”라는 표현에 탄축을 건다. 다케시는 요즘 사람들이 도구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이 같은 어투를 갖게 됐다고 분석한다. 책에 따르면 옛날에는 도구가 손발의 연장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어 인간이 자신이 사용하는 연장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도구들은 뇌의 작용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멍청하게 있어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

기타노 다케시 지음/권남희 옮김/북스코프

도 얼마든 사용이 가능해 연장에 조종당하는 인간이 늘었다는 게 다케시의 주장이다.

그는 “사고 회로가 ‘대중대중’이 돼 표현 능력이 저하되고 상대에게 말이 제대로 전해질지 어떨지 자신이 없어 ‘단 것 같아요’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은은한 단맛이 있고, 사카린처럼 강렬한 단맛이 있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끝까지 파고들어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대중 때우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책은 “~한 것 같은”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현상은 단순한 말의 유행이 아닌 ‘사고 능력의 퇴화’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다케시는 “도구 덕분에 편리해지면 그만큼 인간의 어떤 능력이 퇴화한다. 요컨대 이것은 문명 자체가 안고 있는 병리”라며 “귀찮은 것을 피하기만 하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 뇌를 발달시키는 게 바로 귀찮은 일”이라고 말한다.

224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ik1@

급진의 20대

김내훈 지음/서해문집

요즘의 20대는 약자와 소수자 배려 정책을 ‘불공정’으로, 사회정이나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처신을 ‘위선’으로 받아들인다. 저자는 “20대가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혐오와 분노는 취업과 연애에서부터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조건까지 포기하고 단념하게 만든 체제가 가져온 불안과



우울”이라고 진단한다. 젊은이들의 떨림과 몸부림이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책은 ‘자유주의에서 극우까지’라는 이념의 박스권에 갇힌 한국 사회의 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가장 위태로운 세대가 더 많은 우리를 위해 벌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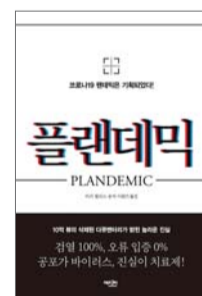
헤게모니 전쟁.

256쪽, 1만6000원.

플랜데믹

미키 윌리스 지음/이원기 옮김/에디터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저자 미키 윌리스는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책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불리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 마이크 로소프트 창업자에서 자선 사업가로 탈바꿈한 빌 게이츠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범세계적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속내를 파헤친다. 저자는 두 명의 핵심 취재원에 주목한다. 바이러스 학자 주디 미코비츠 박사는 권력과 이득을 노리는 책략이 공중 보건을 감독하는 기관과 개인을 어떻게 부패시키는 지 솔직히 이야기한다. 재무 분석가인 데이비드 마틴 박사는 철저한 특허 조사를 통해 얻은 충격적인 데이터로 그들의 이해 충돌 의혹을 짚어낸다.



긴대 패싱

윤석만, 천하람 지음/가디언

책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긴대’(끼인 세대)로 정의한다. 오늘의 3040세대는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문화 감수성을 습득하고 강력한 팬덤 사상을 만들어낸 이들로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탄생’을 경험했다. 그러나 고속 성장의 수혜는 586에 빼앗기고 사회 트렌드는 90년생에게 밀려 아웃사이더가 돼 버렸다. 책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을 메울 열쇠로 긴대를 제시한다.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한 586세대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그들의 정의로운 방식을 배우며 성장했으나, 시대가 급변하며 ‘눈 떠보니 선진국’의 삶을 사는 공정한 90년생 사이에서 두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점에서 있다는 것이다.



268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국 빅테크 반독점법안, 중국 틱톡·위챗도 ‘정조준’ /사진 뉴시스
▲ 사내 성폭력 덮은 블리자드 CEO, 회사 팔아 4600억원 챙겨

▲ 中 동북3성 2년째 韓유학생들 입국 불허
▲ ‘개도국 원조’ 찬성응답 4년새 11%p ↓...코로나·경기위축 원인



▲ 에미레이트항공 수장 “5G 혼란, 업계 몸담으며 본 최악의 실책”
▲ 日전문가, 오미크론 대응에 “인파 억제보다 인원 제한이 중요” /사진 뉴시스